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4.12.04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폰테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단 공식 출범(12.1)
- ② 폰테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연구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11.27)
- ③ 새로운 집행위원회 주요 연구혁신 정책 방향(11.28)
- ④ 일본-EU,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공식 협상 개시(11.29)
- ⑤ EU 이사회 경쟁력 위원회 개최 결과 - 연구 부문(11.29)
- ⑥ EU 이사회 경쟁력 위원회 개최 결과 - 우주 부문(11.29)
- ⑦ 중국-EU, 제16회 과학기술 협력 공동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11.28)
- ⑧ 집행위, 유럽연합 배터리 제조 부문 투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12.3)
- ⑨ EU 이사회, EU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패키지 채택(12.2)
- ⑩ 집행위, 연구 인프라 접근을 위한 개정 헌장 발표(11.27)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집행위, 혁신기금으로 탄소중립 기술,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 및 재생수소에 46억 유로 지원(12.3)
- ② ERC Consolidator Grants 2024, 328명의 연구자에 6억 7,800만 유로(12.3)
- ③ (SB펀딩레이더) 우주 연구 관련 주요 공고(12.3)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스마트 및 지속 가능한 건물 에너지 성능 인증
- ② (연구모음)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클러스터 3 프로젝트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1. 폰테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단 공식 출범(12.1)

- 지난 12월 1일 폰테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 집행위원단이 공식 출범
 - ※ 폰테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 집행위원단 구성 및 책무
 - 2024년 9월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새로운 집행위원단을 유럽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공식 출범
 - 지난주 본회의 연설에서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7월에 발표한 정책 지침과 11월 진행된 집행위원단 청문회에 기반하여 2024~2029년 정책 우선순위와 야망을 제시
 - ※ 유럽의회 의원들은 11월 4-12일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집행위원 후보들을 평가
 - 새로운 집행위원단은 포트폴리오, 회원국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나뉘어 집행위원장, 5명의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 1명의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부집행위원장으로 구성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x_24_6181

- 11월 27일, 유럽의회는 폰테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단을 승인
 - 찬성 370표, 반대 282표, 기권 36표로 가결됨(집행위원단 승인을 위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
 - 폰테어라이엔은 2019년 11월 첫 집행위원장으로 승인된 후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됨
- 표결에 앞서 폰테어라이엔은 집행위원단을 발표하면서 유럽의회 평가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포트폴리오 변경사항을 확인했으며, 집행위원회가 자유, 주권, 안보, 번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강조
 - 폰테어라이엔은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으로 경쟁력 나침반 (Competitiveness Compass)을 제안. 이를 통해 유럽의 미국과 중국과의 혁신 격차를 좁히고, 안보와 독립성을 높이며 탈탄소화를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유럽 그린딜 목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청정산업계획,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화, 순환 경제 및 유럽 저축 투자 연합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전쟁에 대한 유럽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럽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방비 증대를 촉구
- 이후 토론에서 유럽의원(MEP)들은 새 집행위원회가 유럽 경쟁력, 에너지 독립, 방위 연합 구축 등 유럽이 직면한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1121IPR25546/parliament-approves-the-von-der-leyen-ii-commission>

○ 유럽 이사회는 11월 28일 서면 절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2029년 10월 31일 임기를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임명

- 이는 11월 27일 유럽의회의 승인에 따른 것
-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단 구성은 아래와 같음:

이름	국가	이름	국가
Kaja KALLAS	Estonia	Raffaele FITTO	Italy
Magnus BRUNNER	Austria	Valdis DOMBROVSKIS	Latvia
Hadja LAHBIB	Belgium	Andrius KUBILIUS	Lithuania
Ekaterina SPASOVA GECHEVA-ZAHARIEVA	Bulgaria	Christophe HANSEN	Luxembourg
Dubravka ŠUIČA	Croatia	Glenn MICALLEF	Malta
Constantinos KADIS	Cyprus	Wopke Bastiaan HOEKSTRA	Netherlands
Jozef SÍKELA	Czechia	Piotr Arkadiusz SERAFIN	Poland
Dan JØRGENSEN	Denmark	Maria Luís CASANOVA MORGADO DIAS DE ALBUQUERQUE	Portugal
Henna Maria VIRKKUNEN	Finland	Roxana MÎNZATU	Romania
Stéphane SÉJOURNÉ	France	Maroš ŠEFČOVIČ	Slovakia
Apostolos TZITZIKOSTAS	Greece	Marta KOS	Slovenia
Olivér VÁRHELYI	Hungary	Teresa RIBERA RODRÍGUEZ	Spain
Michael MCGRATH	Ireland	Jessika ROSWALL	Sweden

출처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1/28/the-european-council-appoints-the-european-commission/>

2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연구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11.27)

-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는 향후 5년간의 업무를 안내할 '경쟁력 나침반'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유럽의 미국과 중국과의 혁신 격차 해소를 언급
 - 폰테어라이엔은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통해 유럽의 미국과 중국과의 혁신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혁신과 과학기술을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
 - 유럽 스타트업 지원에 대하여 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EU 전역의 국가적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과 같은 통합 자본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
- ※ 유럽연합은 새로운 스타트업 및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으로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를 임명
 - 또한 연설 중 경쟁력, 탈탄소화, 보안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언급
- 폰테어라이엔의 연설에서 연구혁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공개되지 않음
 - 유럽의회 Ehler 의원과 다른 여러 로비스트 및 유럽연합 보고서는 FP10의 최소 2천억 유로로 두 배로 늘릴 것을 요구
 - 폰테어라이엔은 이번 임기의 정책 지침에서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의 확대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목표는 아직 불분명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에서 이번 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의원들은 FP10 예산 중 절반이 ERC와 EIC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MEP들은 민간부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기술산업 경쟁력위원회(European Technolog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Council)와 유럽사회적과제위원회(European Societal Challenges Council)의 설립을 제안
 - 한편, Ehler 의원은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Choose Europe'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제안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ropean-research-council/ursula-von-der-leyen-prioritises-research-meps-approve-new>

③ 새로운 집행위원회 주요 연구혁신 정책 방향(11.28)

- 새로운 집행위원회는 연구혁신을 EU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각 집행위원의 공식 계획 및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혁신과 FP10에 대한 주요 계획과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스타트업·연구혁신 담당 신임 집행위원 자하리에바는 FP10을 간소화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
 - 현재 자하리에바는 연구 자금이 거대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FP10의 개발이 임기 중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청문회에 앞서 공개된 유럽의회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자하리에바는 드라기 보고서와 집행위 FP10 자문 그룹의 결론을 바탕으로 “새롭고 강화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10”에 대한 예비 비전을 제시
 - 자하리에바는 FP10의 간소화가 신청부터 보조금 협약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Heitor 그룹의 ‘선신뢰 후평가’ 원칙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환영
 - 자하리에바는 2025년부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단계 신청 절차*를 시범 운영할 계획
- * 1단계는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에 중점을 두고, 2단계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 또한, 평가 편향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이중 블라인드(double-blind) 평가에 찬성
- 예산 담당 집행위원 Serafin은 연구혁신 예산의 단일 통합 펀드 조성 계획은 없다고 밝힘
 - 예산·반부패·공공행정 담당 집행위원 세라핀은 집행위가 연구혁신 자금을 단일 유럽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부인

- 그러나 세라핀은 자금을 줄여야 하며 이는 국가 개혁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인공지능, 청정기술, 생명공학 등 전략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력 기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세라핀은 집행위가 여전히 이 기금의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함
-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 Séjourné는 경쟁력 펀드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 번영·산업전략 담당 세주르네는 경쟁력 기금이 유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부터 규모 확대까지” 과학기술 기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숍이 될 것이라고 유럽의원에 말함
 - 세주르네는 “다양한 기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가장 적절한 지원으로 안내할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함
 - 그러나 세주르네는 청문회 전 서면답변에서 경쟁력을 포함한 EU 지출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분산되어 있으며, 많은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에 중복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요구사항이 다르고 자금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함
-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 Virkkunen은 양자기술 분야의 EU 법제화 방안을 준비 중
-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비르크넨은 회원국들의 단편적인 연구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양자법(Quantum Act)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비르크넨은 양자기술이 유럽의 강점이지만 개별 회원국의 프로그램을 통합하려면 EU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
 - 비르크넨은 양자기술의 어떤 측면을 강화하고 싶은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양자칩법(quantum chips act)’의 도입을 언급하며 주로 양자 컴퓨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new-commission-takes-reins-what-can-we-expect-rd>

4 일본-EU,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공식 협상 개시(11.29)

- **지난 11월 29일 일본과 유럽연합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공식 협상 개시를 발표**
 -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EU는 과학기술 및 혁신 강국 중 EU와 같은 생각을 가진 비EU국가로 참여 국가를 넓힘
 - 이를 통해 EU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지 않은 뉴질랜드와 한국과 같은 나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준회원국 가입을 성공적으로 협상
 - 이바노바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은 “일본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시작한 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EU와 일본 모두에 있어 경쟁력을 보장하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는 데 연구혁신은 핵심적이다. 우리는 함께 이러한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
- **협상은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2 준회원국 가입을 다룸**
 - 이를 통해 일본 연구자는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자체 연구혁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EU와 다른 준회원국 파트너와 더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일본은 유럽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양자간 연구혁신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옴
 - 협력에 대한 협정은 2011년 발표되었으며, 양측은 2015년에 공동 비전을 통해 이 프레임워크를 심화하고 2020년 5월에 의향서를 체결하여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집행위와 일본 정부 간의 협상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진행될 예정**
 - 지난 7월 캐나다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호라이즌 유럽은 총 19개의 준회원국을 보유
 -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정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체결될 예정으로, 2025년부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와 스위스와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도 현재 진행 중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u-and-japan-launch-formal-talks-association-horizon-europe-2024-11-29_en

5 EU 이사회 경쟁력 위원회 개최 결과 - 연구 부문(11.29)

- 연구 담당 장관들은 EU의 경쟁력 강화, 유럽단일연구공간(ERA) 강화 및 분열 극복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
 - 장관들은 개선된 연구혁신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EU의 경쟁력, 번영 및 기후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 이사회 결론은 과학적 우수성, 와해성 혁신을 촉진하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경제적 안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또한, 회원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2030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3%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및 EU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R&I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
 - 이사회 결론은 경쟁력과 EU의 세계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지식, 인재 및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
 -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은 연구혁신 생태계 단편화를 줄이고 회원국 간 협업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으로, 이사회 결론은 오픈 사이언스, 혁신 생태계, 연구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더 나은 ERA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인재 순환과 연구자 이동성 촉진을 지지
 - 마지막으로 이사회 결론은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유럽의 기술 성장을 위한 유연한 자금 조달을 장려
- 또한, 장관들은 중·동부 유럽의 바이오경제 잠재력 활용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
 - 장관들은 지속가능한 천연 자원 관리, 식량 시스템 보안 및 바이오경제의 배치를 발전시키고 중동부 유럽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유럽 전역 연구혁신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승인
 - 동 이사회 결론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생산이 유럽 그린딜의 2030년 및 2050년 목표를 달성하고 순환 바이오경제를 통해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

- 이는 자원 관리 및 식량 안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이웃 국가 (서발칸 및 후보 국가)와의 보다 큰 국경 간 협력을 요구하며, 순환 바이오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중동부 유럽 국가를 통합하는 이니셔티브인 BIOEAST의 관련 연구 조정 역할을 인정
 - 마지막으로 동 결론은 집행위원회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잠재적인 새로운 R&I 이니셔티브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촉구
- 장관들은 **첨단소재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
- 이사회는 유럽에서 첨단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집행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을 환영하며, 첨단소재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가속화된 연구혁신을 촉구
 - 이러한 소재는 그린딜과 순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자원 효율적이어야 함
 - 이사회는 집행위와 회원국이 연구 보안을 개선하고, 공통 목표를 식별 하고, 적절한 경우 R&I 우선순위 영역을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
 - 이는 EuroHPC 및 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와 같은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소재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제안을 고려
 -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첨단소재 기술 위원회를 설립함에 있어 회원국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피하기를 요청
 - 이는 'EU를 위한 혁신적 소재'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이나 유럽공동 이익중요프로젝트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
 - 또한, 이사회는 혁신가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EU 기금 간의 보다 강력한 시너지를 요구하며, 첨단소재 아카데미의 출범을 언급
 - 마지막으로 이사회 결론은 첨단소재의 건강 및 환경 영향을 포함한 윤리적 및 사회적 의미를 강조

○ 장관들은 헝가리 의장국이 준비한 노트에 따라 EU 경쟁력에 대한 연구혁신의 기여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

- 노트는 드라기 보고서 '유럽 경쟁력의 미래'가 유럽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주도하는 데 있어 연구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다른 세계 경제와의 혁신 격차를 메울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상기시킴
- 장관들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 ①드라기 보고서의 주요 사항과 이를 이행하는 방법, ②포용성, 접근성을 유지하고 R&I의 혜택과 번영을 공유하면서 우수성을 촉진하는 방법, ③민간 R&I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 모든 장관은 드라기 보고서를 환영했으며, 연구혁신이 EU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주요 경제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혁신 격차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
- 많은 장관이 3%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 그러나 대표단에 따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필수적임
- 장관들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늘리고 실제 자본 시장 연합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더 나은 프레임워크를 요구
- 의장국은 연구 정책에서 우수성과 포용성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을 것을 촉구

○ 그 외 장관들은 유럽연구위원회(ERC)의 독립성과 차기 의장국 프로그램을 논의

- 덴마크 대표단은 다른 22개 대표단의 지원을 받아 ERC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이사회는 차기 의장국 폴란드의 대표단으로부터 연구혁신 분야 워크 프로그램에 대해 브리핑을 받음

출처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compet/2024/11/29/>

6 EU 이사회 경쟁력 위원회 개최 결과 - 우주 부문(11.29)

- 우주 분야 담당 장관들은 ‘우주 부문에서 유럽의 역량 강화’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
 - 장관들은 우주 부문이 EU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안보적 목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
 - 그러나 유럽의 경쟁력, 리더십,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유럽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음
 - 이사회 결론은 스킬 개발, 규제 프레임워크, 국제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
 - 동 결론은 STEM 교육 투자, 기업, 대학, 공공 기관 간의 시너지 창출 등 사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 이러한 조치는 유럽 우주 부문 내에서 혁신, 지속 가능성, 회복탄력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유럽연합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무대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우주 부문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우수성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유럽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요구
 - 또한, 장관들은 ‘유럽연합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 평가’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
 - 동 이사회 결론은 집행위가 2024년 발표한 EU 우주 프로그램의 이행과 EU 우주프로그램청(EUSPA)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의 결과를 분석
 - 우주 프로그램(2021-2027)은 지구 관측, 위성 항법, 우주 상황 인식(SSA), 정부 위성 통신(GOVSATCOM), 연결성, 우주 연구혁신 분야의 우주 활동 이행, 연합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우주 접근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됨
 - 또한, 우주 생태계를 지원하고 모든 회원국과 연합 지역에서 경쟁력, 혁신, 기업가 정신, 기술 및 역량 구축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력한 EU 우주 경제의 개발을 촉진하고 EU우주프로그램청(EUSPA)를 설립
- ※ 유럽우주국(ESA)과 유럽우주프로그램청(EUSPA)은 다른 기관임을 참고

- 이사회 결론은 EU 우주 프로그램 이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평가하고 EUSPA의 작업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작업의 우선순위를 파악
- 동 결론은 프로그램의 안전과 회복력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고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장관들은 정책 토론을 통해 EU 우주 정책의 미래 - 민간 우주 프로그램과의 방위 시너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정책 토론은 2023년 3월 EU 우주 안보 및 방위 전략(EUSSSD) 채택에 따른 우주 정책의 전략적 및 안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헝가리 의장국이 작성한 문서](#)에 따라 진행됨
 - 장관들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 (1) 유럽의 증가하는 안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주 프로그램의 가능한 진화, (2) 현재 민간 감독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EU 우주 인프라의 회복탄력성과 안보 강화, (3) 이중용도 기술의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성 목표와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한 단계
 - 많은 대표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상황에 발맞추기 위해 우주에 대한 유럽 정책 인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여러 대표단은 이중용도 고려 사항이 미래의 우주 정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
 - 그러나 EU의 안보 및 방위를 위한 우주 전략에 따라 대부분의 장관은 EU 우주 프로그램이 민간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방위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
 -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올 EU 우주법, 차기 우주 프로그램 및 EU의 주요 우주 이니셔티브는 EU의 우주 시스템의 회복성과 안보를 보장하고, 우주에서 기술적 주권을 보존하고, 전반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용도 고려사항을 고려해야 함
- 마지막으로 차기 폴란드 의장국은 이사회에 우주 분야의 워크 프로그램을 브리핑함

7 중국-EU, 제16회 과학기술 협력 공동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11.28)

- 이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EU-중국 과기협력공동운영위원회로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DG RTD 부총국장 Signe Ratso와 중국 과학기술부 국제협력 국장인 DAI Gang이 공동 의장을 맡음
 - 양측은 각자의 진화하는 과학기술 및 혁신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
 - EU 측은 중국 측에 데이터 보안 제도를 구현하는 방법과 이것이 국경 간 데이터 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
 - 또한, EU와 중국은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EU-중국 협력의 미래를 위한 공동 로드맵과 관련된 진행 중인 협상에서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요약하고 잠재적인 다음 단계에 대해 성찰
 - 작년에 연구 협력과 관련된 프레임워크 조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혁신과 관련된 프레임워크 조건에서도 진전이 필요
 - 양측은 지금까지 식량, 농업 및 바이오 솔루션(FAB)과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CCB) 연구 플래그십 이니셔티브에서 이룬 진전을 평가하고, 이 작업이 미래에 잠재적으론 계속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성찰
 - 양측은 Mission Innovation 및 융합 연구와 같은 다자간 활동에서 진행 중인 협력과 잠재력 협력에 대해 성찰하고 연구자 교육과 양방향 모빌리티를 성공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16th-eu-china-joint-steering-committee-meeting-science-and-technology-cooperation-2024-11-28_en

8 집행위, 유럽연합 배터리 제조 부문 투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12.3)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은 유럽연합의 배터리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
 - 동 파트너십을 통해 2억 유로의 추가 보증금이 EU 혁신기금에서 InvestEU 프로그램으로 지원됨. 이는 10억 유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보조금에 추가되는 것
 -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EIB는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18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
 - 따라서 총 30억 유로의 공공 지원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
 - 혁신기금으로 지원되는 2억 유로의 보조금은 향후 3년 동안 추가적인 EIB 벤처 대출 운영을 통해 유럽 배터리 제조 가치사슬 관련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상업화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장 실패를 줄이고, 민간 투자를 동원하고, 혁신적이고 탄력적인 에너지 저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
- 자금 지원은 첨단소재, 부품제조 및 혁신 재활용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배터리 기술에 집중될 예정
 - 셀 또는 팩 조립 이상의 기술 혁신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며, 채굴 및 추출 활동은 제외됨
 - EIB는 프로젝트의 상업적,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정해진 지원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할 예정
 - EIB는 지난 6년간 60억 유로를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18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새로운 파트너십은 순환 경제를 구현하고 배터리의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EU의 노력을 강조

- 유럽의 배터리 가치사슬, 제조역량 및 재활용 프로세스를 강화하면 EU 그린딜, 배터리 규정 및 탄소중립 산업법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InvestEU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을 활용하여 유럽연합에 장기 자금을 제공하며, 유럽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4_6201

9 EU 이사회, EU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패키지 채택(12.2)

- EU 이사회는 사이버보안 입법 패키지의 일부인 두 가지 새로운 법률, 사이버연대법과 사이버보안법(CSA) 수정안을 채택
- 사이버연대법
 - 새로운 법률은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이버 위협에 맞서 유럽을 더욱 회복력 있게 만들기 위한 EU 역량을 확립
 - 특히 EU 전역의 국가 및 국경 간 사이버 허브로 구성된 범유럽 인프라인 '사이버 보안 정보 시스템'을 구축
 - 이는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사이버 허브는 인공지능 및 고급 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국경을 넘는 사이버 위협 및 사고에 대한 적시 경고를 탐지 및 공유
 - 이러한 조치는 기존 유럽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당국과 관련 기관은 사이버 보안 사고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이 새로운 규정은 또한 EU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비상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을 규정

- 공통적인 위험 시나리오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잠재적 취약성에 대해 핵심 부문(의료, 운송, 에너지 등)의 기관을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한 **대비 조치**
- 중대하거나 대규모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원국이나 EU 기관, 단체 및 관련 제3국의 요청에 따라 개입할 준비가 된 민간 부문의 사고 대응 서비스로 구성된 새로운 **EU 사이버보안 보호 구역**
- **기술적 상호 지원**

-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률은 사이버 비상 메커니즘에 따른 조치의 효과성과 사이버보안 보호구역의 사용, 그리고 이 규정이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사고 검토 메커니즘을 수립

○ 2019년도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타깃 개정안

- 동 개정안은 소위 '관리형 보안 서비스'에 대한 유럽 인증 제도의 미래 채택을 가능하게 하여 EU의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법률은 사이버보안 사고의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에 있어 관리형 보안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
- 이러한 서비스에는 예를 들어 사고 처리, 침투 테스트, 보안 감사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된 컨설팅이 포함될 수 있음
- CSA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타깃 개정안은 이러한 관리형 보안 서비스에 대한 유럽 인증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품질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자의 출현을 촉진하며 일부 회원국이 이미 관리형 보안 서비스에 대한 국가 인증 제도 채택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부 시장의 분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의장의 서명 후에 두 입법안은 앞으로 몇 주 안에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게재 후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

출처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2/02/cybersecurity-package-council-adopts-new-laws-to-strengthen-cybersecurity-capacities-in-the-eu/>

10 집행위, 연구 인프라 접근을 위한 개정 헌장 발표(11.27)

○ 연구 인프라 접근을 위한 개정 헌장은 오픈사이언스, 혁신 및 연구 보안을 촉진

※ 기존 헌장은 2015년에 발표됨

- 이 헌장은 연구 인프라에 대한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정책 의제 조치의 주요 결과로, 연구 인프라가 접근 정책을 정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비규제 원칙과 지침을 제시
- 개정된 헌장은 EU 전역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연구 인프라 환경을 반영하며, 사용자를 중심에 둠
- 개정된 헌장은 오픈사이언스, 연구 보안 및 혁신에 대한 EU의 헌신을 강화, 이는 연구 인프라가 발전하고, 발견을 추진하고, 유럽단일연구공간과 EU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 오픈사이언스 및 FAIR 원칙 촉진

- 헌장은 오픈사이언스와 지식, 결과 및 도구의 투명한 공유를 옹호하며, FAIR 원칙을 준수하여 연구 데이터와 결과를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재현할 수 있도록 강조

○ 연구 보안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

- EU의 연구혁신에 대한 글로벌 접근법에 맞춰 개정된 헌장은 경제적 및 연구 보안과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다룸
- 이를 통해 연구 인프라가 새로운 기회와 과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보안 및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새로운 사용자에게 대한 적응

- 헌장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데 있어 연구 인프라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산업 및 중소기업(SME)의 새로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최첨단 시설과 전문 지식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의 영향 완화

- 헌장은 특히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연구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
- 연구 인프라, 직원 및 사용자에게 대한 액세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revamped-charter-access-research-infrastructure-foster-open-science-innovation-and-research-security-2024-11-27_en
----	---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집행위, 혁신기금으로 탄소중립 기술,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 및 재생수소에 46억 유로 지원(12.3)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 기술 및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46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
 - 임기 첫 주를 맞이한 집행위는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보장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인 탄소중립(net-zero)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34억 유로의 예산으로 유럽 내 혁신적인 탈탄소화 기술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두 개의 공모를 개시하며, 12억 유로로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재생수소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유럽수소은행의 두 번째 경매를 개시
 - 제안서 공모와 경매는 모두 EU 배출권거래제(ETS)의 수입을 사용하여 혁신기금에서 자금을 조달
 - 지원자는 2025년 4월 24일까지 두 가지 공모에 신청 가능
- 총 34억 유로 규모의 유럽 전역의 탄소중립 기술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셀 제조 강화를 위한 두 가지 공모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유럽의 리더십과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EU의 노력을 강조
 - 24억 유로 규모의 탄소중립 기술 공모(IF24 Call)는 다양한 규모의 탈탄소화 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열펌프 및 수소생산 관련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지원
 - 공모에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가능성, 혁신 정도, 프로젝트 성숙도, 복제 가능성 및 비용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됨

- 회원국은 '서비스형 보조금(Grants-as-a-Service)'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옵션을 통해 혁신기금의 평가 프로세스와 간소화된 국가 지원 승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 10억 유로 규모의 IF24 배터리 공모는 처음으로 혁신적인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 및 제조 공정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
 - 해당 공모는 기업들이 여전히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기술을 통해 유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EIB)은 EU의 배터리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시. 동 파트너십은 혁신기금에서 InvestEU 프로그램에 2억 유로의 추가 자금을 제공하며, 이 자금은 유럽 배터리 제조 가치사슬의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향후 3년 동안 EIB 벤처 대출을 운영하여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것
- 12억 유로의 예산으로 혁신기금(IF24 경매)를 통해 유럽수소은행의 두 번째 경매를 개시하여 유럽경제지역에 위치한 재생 수소 생산 업체를 지원할 예정
- 새로운 IF24 경매(IF24 Auction)는 10억 유로의 예산으로 소비 분야에 관계없이 재생가능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2억 유로로 해양 부문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
 - 집행위는 또한 '서비스형 경매(Auctions-as-a-service)'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혁신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별도의 경매 없이 국가 기금을 사용하여 자국 내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회원국은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6184

2 ERC Consolidator Grants 2024, 328명의 연구자에 6억 7,800만 유로(12.3)

- 유럽연구위원회(ERC)는 2024년도 Consolidator Grants에 따라 328명의 연구자를 선정, 총 6억 7,8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 이 보조금은 뛰어난 과학자와 학자들이 독립적인 연구팀을 구성하고 가장 유망한 과학적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보조금은 공학, 생명 과학,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 분야에 걸친 과학 프로젝트를 지원, 이에는 이민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I를 사용한 소방 전략 개선, 패배한 정당 유권자의 결과 수용 방식 분석 등이 포함됨
 - 선정된 프로젝트는 25개 EU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독일이 67개로 가장 많은 수의 보조금을 획득하였으며, 그 뒤를 프랑스(38개), 영국(38개), 네덜란드(37개)가 이음
 - 수상자는 47개국 출신으로, 독일인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인(34명), 이탈리아인(29명)이 그 뒤를 이음
 - 이번 보조금은 호스트 기관의 박사후 연구원, 박사과정생 및 기타 직원을 위해 약 2,7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출처	https://erc.europa.eu/news-events/news/erc-2024-consolidator-grants-results
통계	https://erc.europa.eu/sites/default/files/2024-12/erc-2024-cog-statistics.pdf
명단	https://erc.europa.eu/sites/default/files/2024-12/erc-2024-cog-results-all-domains.pdf

3 [SB편딩레이더] 우주 연구 관련 주요 공고(12.3)

- 지난주 유럽의회가 새로운 집행위원단을 승인함에 따라 Kubilius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신임 EU 국방 및 우주 담당 집행위원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
 - 쿠빌리우스는 청문회에서 유럽이 '우주혁명'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며, EU 우주 프로그램의 발전, 우주에 대한 자율적 접근권 확보, 새로운 EU 우주법 도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EU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이러한 노력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유럽방위기금, 유럽우주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질 것

[EU Agency for the Space Programme](#)

- 유럽우주기구는 Galileo Timing Service를 활용한 표준화된 타이밍 수신기의 개발과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공고를 게시
- 프로젝트당 150만 유로가 지원되며, 지원 마감일은 2025년 1월 17일

[European Space Agency](#)

- 유럽우주국은 위성 자원(위성 내비게이션, 지구관측, 위성통신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 및 평가를 지원하는 [공고](#)를 게시. 프로그램별로 6만-200만 유로의 자금이 지원됨
- 또 다른 공고로, [타당성 연구 및 시범 프로젝트 공고](#)는 위성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상업 서비스 개발을 지원. 상시 접수
- [Space4Rail 공고](#)는 유럽 철도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우주 기반 자산 활용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해당 공고는 2025년 12월 31일 마감됨

[Asian Try Zero-G 2025](#)

- 아시아 국가 학생들의 우주과학 및 미세중력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주도하는 협력 이니셔티브
- 유체역학, 재료과학, 생물학적 반응, 물리학 등 국제우주정거장의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하는 연구 실험을 제안할 아시아 학생들을 모집중
- 선발은 1-3월 동안 진행됨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스마트 및 지속 가능한 건물 에너지 성능 인증

- EU 지원 D²EPC 프로젝트는 유연한 에너지 성능 인증서로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및 인증 방식을 혁신
 - 프로젝트의 에너지 성능 인증서는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주택 소유주, 건축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를 지원
 - 유럽의 건물 부문은 EU 에너지 총소비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EU의 기후 중립 목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 D²EPC 프로젝트는 차세대 유연한 디지털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라는 개념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바꿈
 - 기존의 EPC는 건물의 에너지 라벨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문자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A'는 뛰어난 효율을, 'G'는 가장 낮은 효율을 나타냄
 - 이러한 정형화된 인증서는 종종 실제 데이터가 아닌 예측된 성능을 기반으로 한 스냅샷을 제공하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 D²EPC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존의 접근 방식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유연하게 건물의 실제 에너지 성능에 따라 조정되고 업데이트되는 인증서를 고안
 - 이러한 인증서는 전체 건물 수명 주기를 포함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
 - 이러한 혁신은 에너지 소비량, 거주 패턴, 실내 공기 질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 빌딩 개념에 중점을 둠

- 모든 데이터는 D²EPC 다중 매개변수 평가 프레임워크에 입력되어 건물의 에너지 성능, 스마트성, 환경 영향 및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프로젝트 매니저인 Panagiota Chatzipanagiotidou는 “처음부터 우리의 비전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었다”라고 말함
- “우리는 EU 전역에 배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건물 정보 모델링 기반 디지털 트윈을 토대로 EPC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자 했다.”
- D²EPC 프로젝트는 세입자 또는 시설 관리자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소화된 버전과 EPC 평가자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버전으로 구성된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품질을 검증
 - 다이어그램, 3D 모델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표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건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보수를 위한 심층 정보와 권장 사항, 건물 운영 성능 예측 및 비효율적인 운영 시 알람을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 “D²EPC는 단순한 에너지 사용을 넘어선다. 건물의 스마트성, 사용자의 편의성, 재무지표 및 지속 가능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그림을 제공한다.”(Panagiota)
- D²EPC 프로젝트는 이론적인 개념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의 4곳에서 실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
 - 파일럿 테스트에는 독일의 다가구 주택과 사무실부터 키프로스의 복합 용도 대학 공간, 그리스의 주거용 건물까지 총 6개의 건물이 포함되었음
 - 파일럿 중 일부는 이미 스마트 홈 기능이나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복잡성과 귀중한 데이터를 추가
 - 프로젝트는 개별 건물을 넘어선 이점을 제공, 정책 입안자는 전체 지역의 건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 에너지 효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받으며 효과적인 계획과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음

- D^2EPC는 또한 주택 소유주의 역량 강화에도 주목, 에너지 효율과 편의성을 위해 차세대 EPC를 통해 부동산을 최적화하여 잠재적인 비용 절감과 더 유리한 임대 시장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인증서, 한 단계 높은 결과: “D^2EPC는 유럽 전역의 학계, 표준화 기관, 기술 회사, 에너지 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결집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이 프로젝트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Panagiota)
- D^2EPC는 14개의 과학 논문과 55개 이상의 기사를 발표했으며, 운영 등급을 다루는 새로운 표준화 작업 그룹을 구성했고, 유럽표준화위원회 (CEN)의 권위 있는 ‘2023년 표준+혁신 어워드’의 프로젝트 부문을 수상
 - 건물 부문이 EU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혁신적인 인증은 유럽이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프로젝트의 EPC는 역동적인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

D^2EPC 프로젝트

- 기간 : 2020.09.01. ~ 2023.08.31.
- 예산 : 약 2,993,687 유로 (EU 2,499,287 유로 지원)
- 주관 : ETHNIKO KENTRO EREVNAS KAI TECHNOLOGIKIS ANAPTYXIS (그리스)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transforming-buildings-smart-sustainable-spaces-using-dynamic-energy-certificates>

2 [연구모음]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클러스터 3 프로젝트

-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동 연구모음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EU 지원 연구를 소개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인신매매, 여성 생식기 절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여성에 대한 폭력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유럽연합기본권기구의 20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은 배우자, 친척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통계 수치를 고려하면 여성폭력 문제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임
- EU는 호라이즌 유럽 클러스터3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 폭력 신고 방식을 혁신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U는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경찰관 및 의료 전문가와 같은 긴급 구조대원들이 가정 폭력 피해자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이론에서 실제 상황까지 응급 구조대원의 역량 강화: IMPRODOVA 프로젝트
 - 가정폭력은 종종 사회적 낙인으로 가려지며, 문화적 배경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2022년 유럽통계청(Eurostat)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의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다른 국가의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고 지원도 제한되는 등 EU 국가별로 대응하는 방식이 다양

-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IMPRODOVA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절차를 조사하여 실무자를 위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 이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는 법대생, 경찰관, 교사에게 배포되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도록 함

○ 가정 폭력 신고에 인공지능(AI) 활용: IMPROVE 프로젝트

- IMPRODOVA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Horizon Europe의 IMPROVE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와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소외된 지역사회에 주력하고 정책 성과를 가속화하고자 함
- 이 프로젝트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적발하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 대화형 AI 챗봇은 피해자에게 조언, 위험 평가 및 안내를 제공하며, 생존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됨

○ 가정 폭력 조기 발견 및 예방: ISEDA 프로젝트

- Horizon Europe의 지원을 받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ISEDA)는 사회과학, 인문학, 현장의 전문 지식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SEDA는 경찰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의 가정 폭력 신고를 지원하며,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기록을 제공
- 또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과 가해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
-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단체, 개인의 공동 노력이 필요
- IMPRODOVA, IMPROVE, ISEDA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더 안전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IMPRODOVA 프로젝트

- 기간 : 2018.05.01. ~ 2021.08.31.
- 예산 : 약 2,929,073.75 유로 (EU 100% 지원)
- 주관 : DEUTSCHE HOCHSCHULE DER POLIZEI (독일)

IMPROVE 프로젝트

- 기간 : 2022.10.01. ~ 2025.09.30
- 예산 : 약 3,185,790 유로 (EU 2,978,095.50 지원)
- 주관 : DEUTSCHE HOCHSCHULE DER POLIZEI (독일)

ISEDА 프로젝트

- 기간 : 2022.09.01. ~ 2025.08.31
- 예산 : 약 2,947,827.50 유로 (EU 2,678,523.88 지원)
- 주관 : TECHNISCHE HOCHSCHULE KOELN (독일)

출처

https://rea.ec.europa.eu/news/elimination-violence-against-women-tackling-global-crisis-2024-11-22_en